

브라민 생의 기반은 신의 사랑이다.

오늘 밥다다는 그를 사랑하면서 협조적이고 쉬운 요기 영혼들을 보고 있다. 너희 모두 요기 영혼들이다. 이것은 요기들의 집회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 앉아있는 너희들 모두 요기 영혼들, 즉 신에게 사랑받는 영혼들이다. 신에게 사랑받는 자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는다. 너희 모두 지고의 영혼에게 사랑받는다는, 신에게 사랑받는 자들이며 또 세상의 사랑도 역시 받게 되는 자들이라는 영적 도취감, 영적 자부심, 영적인 자아존중을 끊임없이 가지느냐? 그들은 그저 1초의 일별, 단 1초 또는 1/2초의 드리시티를 받기를 원할 뿐이며 이것이 신봉자들이 갈망하는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대단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너희들은 신의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 있게 되었다. 너희는 신에게 사랑 받는다. 이것은 참으로 크나큰 행운이다! 오늘날 영혼들 각자 아동기부터 죽을 때까지 뭘 원하느냐? 심지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이조차 제 삶에서 사랑을 원한다. 그들이 나중에는 돈을 원하지만 처음에는 사랑을 원한다. 사랑을 갖지 못한 경우 그들은 자기 인생을 절망적인 삶, 행복이 없는 삶으로 경험한다. 하지만 영혼인 너희들은 모두 신의 사랑을 받았으며, 신에게 사랑 받고 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겠느냐? 사랑이 있으면 세상이 있고 생명이 있다. 사랑이 없다면 인생도 없고 세상도 없다. 사랑 받을 때 너희는 세상을 받는다. 이 사랑을 너희의 고귀한 행운으로 경험하느냐? 세상은 이를 갈망한다. 그들은 단 한 방울이라도 그것을 갈구하고 너희들은 신의 사랑을 이미 너희의 소유물로 받았다. 신에게서 오는 이 사랑으로 너희는 부양 받고 있다, 즉 너희는 브라민 생에서 전진하고 있다. 이것을 경험하느냐? 사랑의 대양 안에 합쳐진 상태로 머무느냐? 아니면 너희가 그저 그것을 듣거나 그것에 대해 알 뿐이냐? 다시 말해 해안가에 그저 서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며 그것을 지켜볼 따름이냐? 단순히 그것을 듣거나 그것에 대해 안다는 것은 해변에 서있다는 뜻이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합쳐지는 것이 사랑의 대양에 합쳐진다는 뜻이다. 신에게 사랑 받고 나서도 만일 너희가 대양에 합쳐져서 대양 안에 잠겨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경우에 너희는 신에게 속한 뒤에도 뭔가를 성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갈구하는 상태로 머무는 자들이다. 가까워지고 나서도 목마른 상태로 머무는 것을 너희는 뭐라고 부르려느냐? 너희가 그에게 속하도록 만든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 그저 생각만 해봐라! 너희들은 누구에게 사랑 받느냐? 누가 너희를 부양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변함없이 사랑에 합쳐져 있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문제나 어떤 유형의 격변에도 영향 받을 수 없다. 너희는 한결같은 장애의 파괴자이며 온갖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화신, 마야의 정복자로 너희 스스로를 경험할 것이다.

자녀인 너희들 중 일부는 지식의 심오한 것들을 기억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어찌 되었든 너희가 신에게 사랑 받는다는 것과 신의 사랑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는 것 한 가지는 기억해라. 이 한 가지를 인식하면 너희는 변함없이 강력해질 것이다. 이것은 쉽지 않느냐? 이것마저 잊는다면 너희는 미로에 갇히게 된다. 이 한 가지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성취에 대한 권리를 갖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신에게 사랑 받고 있다는 것과 모든 이에게 사랑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해라. 이해하느냐? 이것은 쉽지 않느냐? 앗차. 지금까지 너희가 많이 들었으니 이젠 그 전부를 다 채택해라. 채택하는 것이 곧 대등해지는 것이다. 이해하느냐?

신에게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자녀들 모두에게, 사랑 안에 합쳐져 있는 고귀한 영혼 모두에게, 사랑으로 부양 받을 권리를 가진 모든 자녀들에게,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인 도취감에 머무는 고귀한 영혼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나마스테.

아비약트 밥다다가 그룹들을 만나심 :

너희들 모두 쉬운 요기 영혼들이 아니냐? 모든 관계에 대한 기억은 너희를 쉬운 요기로 만든다. 관계를 가질 때는 모든 것이 다 쉽다. 쉬운 요기라는 자각은 모든 문제를 쉽게 끝내는데, 쉬운 요기라 함은 끊임없이 아버지의 동반을 경험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전능한 권위자 아버지를 동반할 때, 너희가 모든 힘을 다 갖고 있을 때, 문제들은 해결책의 형태로 바뀐다. 문제가 있을 때는 언제나 아버지에게 넘기되 단지 문제만 넘겨라! 너희가 그런 관계에 대해 권리를 가질 때 문제들은 끝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니다! 아버지는 문제에 대해서 안다. “나는 초연하며 신에게 사랑 받는다.” 그러면 모든 짐무게가 아버지에게 속하고 너희는 가벼워진다. 너희가 가벼워지면 만사 모든 것 역시 가벼워진다. 그것들을 아주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너희는 무거워지고 그것들도 역시 무거워진다. 그러므로 “나는 가볍고 나는 초연하다”라고 생각해라, 그러면 만사 모든 것 역시 가벼워질 것이다. 이것이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너희는 성공을 거둘 것이다. 과거의 카르마의 부채가 청산되는 동안에도 너희는 그것들을 짐으로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모든 것을 초연한 관찰자로서 지켜본다면 마치 과거가 끝나고 있으며 현재의 힘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초연한 관찰자로 보고 있는 셈이다. 너희들은 축적하면서 동시에 청산하고 있다. 축적의 힘을 가지면 너희는 청산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러한즉 늘 현재만 기억해라. 한 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쪽은 자동적으로 가벼워진다. 그러니 만일 현재가 무겁다면 과거는 가벼워질 것이 아니냐? 현재의 성취들을 언제나 의식 안에 간직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벼워질 것이다. 과거의 부채를 가볍게 만드는 길은 현재를 강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차피 현재는 강력하다. 현재의 성취를 늘 너희 앞에 뒤라, 그러면 모든 것이 쉬워질 것이다. 과거는 십자가에서 가시로 변할 것이다. “이게 뭐지?” 라는 의문은 없을 것이다. “이건 왜 이래?” 아니다. 그것은 과거다. 무엇 때문에 너희가 과거를 봐야 되겠느냐? 사랑이 있는 곳에서는 장애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게임처럼 여겨진다. 현재의 행복이라는 축복과 더불어 약을 갖고 너희들의 카르마의 부채를 전부 다 정리해라.

밥다다가 교사들을 만나심 :

너희는 매 발걸음마다 끊임없이 성공을 경험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들은 경험을 가진 영혼들이 아니냐? 경험은 전체 모든 것들 중에서 제일 큰 권위다. 경험이라는 권위를 가진 자들은 어쨌든 매 발걸음과 모든 과제에 성공한다. 봉사의 도구가 되는 기회를 받는 것 역시 특별함을 나타내는 징표다. 너희가 어떤 기회를 받든 계속 그것들을 갖고 전진해라. 너희는 끊임없이 전진하고 남들 역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들이다. 도구라는 의식이 너희로 하여금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한다. 겸손한 도구로서의 특질을 항상 간직해라. 이 특질은 언제나 너희를 특별하게 만들 것이다. 도구가 되는 배역은 너희에게 승강기도 역시 준다. 남들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은 너희가 완성된다는 뜻이다. 결단력으로 계속 성공을 달성해라. 성공은 보장되어 있다. 너희가 이 결의를 가질 때 성공은 너희들 앞에 자동적으로 갈 것이다.

태어나던 순간부터 황금의 기회를 받았으니 너희는 전체 모든 총리들 중에서 최고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어릴 때부터 너희는 봉사자가 되는 행운을 갖고 왔다. 너희들은 각자의 행운이 일깨워져서 왔다. 너희는 참으로 많은 영혼들의 고귀한 행운을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므로 항상 “와, 고귀한 내 행운의 높은 선”이라고 기억해라. 너희는 아버지를 찾았고 봉사를 받았고 봉사 장소를 받았으며, 봉사와 더불어 고귀한 영혼들의 고귀한 가족도 역시 찾았다.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이 뭐냐? 너희는 왕국의 행운을 받았고, 모든 것을 다 받았다. 항상 이 행복을 느껴라. 옳은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끊임없이 계속 발전하라. 너희들이 도구가 되는 방법으로 봉사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밥다다가 쿠마르들을 만나심 :

쿠마르의 생애 구제되는 것은 전체 모든 행운 중에서 최대의 행운이다. 너희는 참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들로부터 구제되었다. “쿠마르”라 함은 굴레 없이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뜻이다. 쿠마르의 생애 굴레가 없는 삶이다. 그렇지만 쿠마르의 생애 자유로운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짐을 짊어진다라는 뜻이다. 쿠마르들에게 주는 밥다다의 지시는 로킵한 가족들과 살면서 알로킵한 봉사를 하라는 것이다. 로킵한 봉사는 접촉하는 이들을 만들어내는 길이다. 이렇게 하며 늘 바쁘게 지내라, 그러면 너희는 알로킵한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들과 살면서 알로킵한 봉사를 해라, 그러면 너희의 지각은 무거운 상태로 머물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경험을 모든 이와 나눔으로써 봉사해라. 봉사의 수단이라 여기며 로킵한 봉사를 해라, 그러면 로킵의 그런 편의시설들이 봉사를 위한 여러 기회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의 목표는 신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고 그것들은 수단이다. 이 이해를 갖고 그 일을 해라. “쿠마르”란 용기를 가진 자들을 의미한다. 너희는 원하는 것을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밥다다는 항상 올바른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을 거두라고 너희에게 조언한다. “쿠마르”란 한결같은 요기라는 뜻인데 쿠마르들의 세계는 아버지 한 분 뿐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너희의 세계 전부일 때 너희들의 지각이 세상 외의 어디로 가겠느냐? 모든 것이 한 분 뿐이므로 그분에 대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한 분을 기억하기는 아주 쉽다. 너희는 많은 이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워졌다. 모든 것이 한 분 안에 합쳐져 있다. 너희의 모든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봉사해라. 너희의 눈길과 말에는 봉사말고는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사랑하는 분을 드러내려는 열의가 있다. 너희의 매 발걸음마다 아버지와 봉사만 있게 해라. 앗차.

카르마티트이며 몸 없는 단계를 경험하는 길 :

- 1) “나의 것, 내 것”이라는 제한된 육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라.
- 2) 로킵 (세상의)과 알로킵한 (영적인) 행위들과 관계, 양쪽 모두에서 이기적인 의도가 없게 해라.
- 3) 너희들의 과거 생애의 행위에 대한 카르마의 부채와 현재 너희의 노력에서의 나약함으로 인해 낭비적인 성질이나 산스카르에 영향 받는 데서 벗어나 자유로워져라.
- 4) 만일 봉사에서의 불리한 상황이나 집회나 물질이 너희 본연의 고귀한 단계를 흔들리게 한다면 그것은 굴레 없는 단계가 아니다. 이런 굴레에서도 벗어나 자유로워져라.
- 5) 이 낡은 세상에서 너희의 낡은 마지막 몸의 질병이 너희들의 고귀한 단계를 동요되게 하도록 놔두지 말고, 이것에서도 자유로워져라. 질환은 올 숙명이지만 너희의 단계가 동요되는 것은 굴레에 사로잡혀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자아에 대해 생각하고 지식에 대해 생각하고 좋은 염원을 품은 자가 되어라. 몸의 질환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 자유로워져라. 이를 카르마티트 단계라 한다.

카르마 요기가 되어 한결같이 카르마의 굴레에서 떨어져 초연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아버지를 항상 사랑해라, 이것이 카르마티트이며 몸 없는 단계다. 카르마티트가 된다는 것은 행위를 행하는 데서 초월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행위를 행하는 데서 초월해 있지 말고 행위의 굴레에 사로잡히는 데서 분리되어라. 과제가 아무리 커도 너희가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말고 마치 놀이를 하고 있는 듯이 느껴라. 어떤 역경에 처하든 카르마의 부채를 정리하려고 어떤 영혼이 너희 앞에 오든, 심지어 몸을 통한 카르마의 고통이 너희 앞에서 계속되더라도 한정된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지내라, 이것이 몸 없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 몸을 갖고 행위의

장에서 신체감각들을 가지고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고 있는 동안 너희는 단 1초도 행위를 행하지 않고는 머물 수 없다. 하지만 행위를 행하면서도 행위의 굴레 너머에 머무는 것이 카르마티트이며 몸 없는 단계다. 따라서 신체감각들을 통해 카르마의 관계 안에 들어오되, 카르마의 굴레에는 묶이지 마라. 없어질 카르마의 결실에 대한 바람에 영향 받지 마라. “카르마티트”라 함은 카르마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권위자가 되어서 일시적 욕망에서 분리되어 초연한 상태로 머물며 너희의 신체감각으로 관계를 맺고 너희의 신체감각들이 행동하게 만들어라. 영혼이며 주인인 너희는 행위에 의존하지 말고, 권위자로서 계속 행위를 행해야 한다. 행위를 행하는 자로서 행위들이 행해질 수 있게 해라. 이를 두고 카르마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 한다. 카르마티트 영혼은 관계를 갖되 굴레는 갖지 않는다.

“카르마티트”라 함은 저 너머에 머문다는 뜻, 즉 몸, 육신의 관계, 로직과 알로직의 관계와 굴레들 양쪽 모두에 연관된 몸, 육신의 관계들, 소유물 등에서 분리되어 초연하다는 뜻이다. “관계”라는 말이 쓰이긴 하지만 몸이나 육신의 관계에 대한 의존이 있는 경우엔 그것이 결국 굴레가 된다. 카르마티트 단계에서는 카르마에 대한 비밀과 카르마의 굴레를 알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충족되어 머문다. 너희는 결코 기분 상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영혼은 과거 생의 카르마의 부채에 의한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과거 생의 카르마의 부채에 대한 결과로 몸에 뭔가 질병이 있거나 심지어 마음이 다른 영혼들의 산스카르와 마찰을 일으키더라도 카르마티트 영혼은 카르마의 고통에 영향 받지 않고, 주인이 되어 부채가 청산될 수 있게 할 것이다. 카르마 요기가 되어 카르마의 괴로움을 정리하는 것은 카르마티트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시다. 요가를 하며, 미소를 띠고 그는 카르마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가시로 바꿔서 그것을 없앨 것이다, 즉 그는 카르마의 고통을 끝낼 것이다. 카르마 요기의 단계로 너희들의 카르마의 괴로움을 변형시킬 수 있는 것이 카르마티트 단계다.

낭비적인 생각은 일부 카르마의 굴레의 미묘한 끈이다. 카르마티트 영혼은 뭔가 나쁜 일 속에서도 이로움을 경험할 것이다. 그런 영혼은 일어나고 있는 일은 뭐든지 다 좋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좋고, 아버지도 좋고, 드라마도 좋다. 이런 생각은 굴레를 자르는 가위처럼 작용한다. 굴레가 끊겨 나가면 너희는 카르마티트가 될 것이다. 몸 없는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욕망에 대한 지식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져라. 한정된 그 어떤 욕망에서도 자유로운 그런 영혼은 아버지와 대등하며 모든 이의 소망을 충족시켜주는 캄데누일 것이다. 아버지의 보물창고가 항상 보물들로 가득하고 성취 중에 뭐 하나라도 빠졌다는 언급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늘 모든 보물들로 가득해라. 세계 사이클에서 너희 각자의 배역을 연기하면서 슬픔의 갖가지 회전으로부터 자유로이 머무는 것이 삶속에서 해방된 단계다. 그런 단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리를 다 가진 자, 너희의 신체감각들 모두가 일하게 만드는 주인이 되어라. 행동하고, 행위가 이루어지자마자 초연해져라. 이것이 몸 없는 단계를 위한 훈련이다. 영혼 본연의 영원한 형태는 주체성이다. 영혼은 주인, 왕이다. 마음에 굴레가 없게 해라. 마음에 굴레가 있으면 굴레 하나가 다른 여러 개의 굴레를 가져오므로, 자아의 군주, 즉 굴레가 없는 왕이 되어라. 이렇게 되려면 너희의 제동장치(브레이크)를 강력하게 해라. 너희가 보기를 원하는 것만 보고,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들어라. 그렇게 제어하는 힘을 가질 때 너희는 마지막에 우등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1사단에 들어갈 것이다.

Blessing: 너희 본래의 영원하고 특별한 미덕으로 순수성을 채택하는, 송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 되어라.

송배받을 가치 있게 되는 특별한 기반은 순수성이다. 너희가 모든 유형의 순수성을 더 많이 채택할수록 너희는 그에 따라 모든 방식으로 송배받을 가치가 있게 된다. 규율에 따라서 순수성을 특별한 미덕으로 원래부터 영원히 채택하는 자들도 역시 규율에 맞게 송배되는 이들이다. 순수한 태도, 시선, 파동을 유지하면서 기야니

영혼들 그리고 아기가니 (지식이 없는) 영혼들과 접촉하며 심지어 꿈속에조차 순수성을 깨뜨리지 않고 올바르게 관계와 연결을 유지하는 이들이 규율에 맞게 숭배되는 자들이다.

Slogan: 거대한 세상에 살면서 아비약트 천사로서 봉사해라, 그러면 세계를 유익하게 하는 과업이 빠른 속도로 달성될 것이다.

***** 음 산티 O M S H A N T I *****

아버지 브라마와 대등해지려는 특별한 노력 :

아버지 브라마를 사랑한다면 아버지처럼 천사가 되어라. 빛으로 된 너희들의 천사 모습이 언제나 너희 앞에 보이게 하고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해라. 너희들의 미래 모습도 역시 눈에 보이게 해라. 이제는 이 모습을 버리고 그 모습을 채택해라.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는 너희가 완성에 가깝다는 것을 이해해라.